

“청렴도시 구현”...여수시, 종합청렴도 1등급 달성 ‘사활’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 본격 추진·실천 다짐 캠페인도 정기명 시장 “공직자 일탈 무관용 원칙 ‘일벌백계’할 것”

여수시가 올해 종합청렴도 1등급 달성을 목표로 청렴도를 획 끌어올릴 방침이다.

3일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해 권익위원회 주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전년보다 1단계 상승한 2등급의 성과를 거둔 여수시는 올해 부진했던 부분에 대한 개선책으로 마련한 '2024년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의 본격 추진에 나섰다.

이번 대책은 종합청렴도 1등급 달성을 목표로 '시민이 신뢰하는 청렴 여수 구현'을 비전으로 36개 시책이 추진된다. 특히 정기명 시장이 청렴도 향상 추진 상황을 직접 점검해 실행력을 높일 계획이다.

올해는 공직자 윤리 의식 향상과 비위 예방을 위한 전 직원 대상 반부패 청렴교육을 강화하고 상호 존중하는 공직 문화를 만들어 가는 데에 중점을 뒀다.

우선 ▲전문기관 의뢰 민원인 '청렴콜' 사전 모니터링 ▲'청렴 시민감사관' 운영 활성화 ▲'청렴 서한문' 발송 ▲부패·공익신고 등 반부패 제도 홍보 다각화 등 시민 제감 청렴 인식 제고를 통해 외부체감도 향상을 도모한다.

또한 내부체감도 향상을 위해 ▲'찾아가는 청렴 간담회' 확대 운영 ▲내부 직원 자체 청렴도 조사 ▲상호존중 '청렴한 데이' 운영 ▲청렴 아집방송 등 소통하며 즐거운 공직문화를 만들어 갈



여수시는 지난날 29일 시청 회의실에서 고위공직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 실천 다짐'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여수시 제공)

계획이다.

이윤리 ▲공직비리 예방을 위한 감찰 활동 강화 ▲전 부서 부패방지 시책평가 ▲고위공직자 청렴교육 확대 및 실천 다짐 ▲전 직원 반부패 청렴교육 확대 운영 등 공직자 윤리의식 함양과 함

께 청렴문화 확산 및 공직비위 예방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여수시는 본격적인 종합대책 추진에 앞서 지난날 29일 고위공직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 실천 다짐 캠페인'을 펼쳐 부패 척결에 대한 의지를 다졌

다.

정기명 시장은 “최근 시 공직자들의 불미스러운 일들로 시민들의 신뢰를 크게 떨어뜨리고 있다”며 “공무원 품위를 훼손하는 등 공직자의 비위나 일탈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일벌백계하

겠다”고 강하게 말했다.

정 시장은 이어 “2천여 공직자와 청렴 실천 의지를 더욱 다지고 청렴 수준을 시민 눈높이에 맞게 끌어올려 '시민이 신뢰하는 청렴도시여수'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여수=김진성 기자



광양시,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 지정

K-첨단산업 연계 인재양성 목표·교육개혁 추진

광양시가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으로 지정돼 K-첨단산업을 연계한 인재양성을 목표로 교육 개혁을 추진한다.

광양시는 “최근 교육 혁신을 통해 지역소멸을 막기 위한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으로 지정됐다”고 3일 밝혔다.

교육발전특구는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대학 등이 협력해 지역 교육 혁신과 인재 양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다.

교육부는 지난날 12월11일부터 올해 2월9일까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을

공모했으며, 총 15개 광역지자체, 94개 기초지자체(92개 기초 지자체, 2개 행정시)가 참여해 6개 광역 지자체와 43개 기초 지자체가 선정됐다.

교육발전특구에 지정되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특별교부금을 통해 향후 30억원~100억원씩 지원받고, 지역이 필요로 하는 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규제 특례도 적용 받는다.

시는 이번 지정을 통해 K-첨단산업을 연계한 인재 양성을 목표로 ▲늘봄학교 운영 확대 ▲24시간 돌봄어린이집 운영 ▲문화센터 연계형 거점 돌봄센터 건립 등 지역과 함께하는 빈틈없

는 돌봄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자율형 공립고, 협약형 특성화고를 통해 지역맞춤 특화교육으로 공교육을 강화하고, 순천대 글로벌30과도 연계해 남해안남중권 지역 성장을 주도하는 이차전지, 수소 등 첨단산업 인력양성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정인화 시장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에 노력한 교육부, 지방시대위원회 관계자, 도교육청 관계자에게 경의를 표한다”며 “이차전지, 신소재산업 등 K-첨단산업을 연계한 인재양성을 목표로 교육개혁을 추진해 모범적인 인재 양성도시, 선도적인 교육개혁도시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광양=양홍렬 기자



“섬진강권 통합 관광벨트 조성 협력 강화”

이상철 곡성군수, 섬진강권 4개 시군 단체장 간담회서 논의

곡성군은 “최근 이상철 군수가 섬진강 관광시대 도약을 위한 4개 시군 지자체장 간담회에 참석했다”고 3일 밝혔다.

(사진) 구례군에서 주관한 이번 간담회에는 이상철 곡성군수, 김순호 구례군수, 하승철 하동군수, 정인화 광양시장 등 4개 지자체 시장·군수와 관광과장 등 약 30여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그간 섬진강권 내에서 추진해온 다양한 사업의 경과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연계사업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참여 지자체들은 대외 교섭력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섬진강 관광시

대로의 본격적인 도약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다짐했다.

이들 4개 지자체는 2021년 섬진강권 통합 관광벨트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섬진강을 전국적인 관광 명소로 발전시키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섬진강권 관광벨트 조성사업은 대통령의 지역 핵심 공약으로 선정되고 행정안전부의 지자체 간 협력뉴딜사업으로 선정되는 등의 성과를 이뤘다.

이상철 군수는 “앞으로도 꾸준한 간담회 참석과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섬진강권 통합 관광벨트 조성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백현기 기자

‘화순 꽃강길 음악분수’ 운영 재개 오는 8일부터 평일 1회·주말 2회씩

화순군은 3일 “화려한 야간경관과 분수 쇼로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았던 ‘화순 꽃강길 음악분수’를 오는 8일 운영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올해 음악분수는 전 연령대가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트로트, 팝송, 댄스 등 20여곡을 추가하고, 다양한 컨셉의 콘텐츠 연출과 방문객 참여 이벤트 개최를 통해 더욱 풍성하고 다채로운 분수 쇼를 선보일 예정이다.

아울러 산책로 꽃길, 푸드존에 더해 버스킹 등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을 펼쳐 볼거리와 먹거리, 즐길 거리가 함께 공존하는 화순군의 문화관광 일번지로 자리매김이 기대된다.

화순 꽃강길 음악분수는 오는 8일부터 10월 말까지 평일 1회, 주말·공휴일 2회씩 운영할 예정이며, 음악분수 운영 시간을 계절별 일몰 시각에 맞춰 탄력적으로 변경·운영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화순군 관계자는 “멋진 음악분수 쇼와 더불어 다양한 행사를 개최해 군을 찾는 모든 분에게 잊지 못할 즐거움과 힐링을 선사하는 지역의 명소로 발돋움할 것”이라고 말했다. /화순=이병철 기자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 참여기업 모집

담양군, 4년간 최대 2천만원 장려금 지원

담양군은 “최근 2024년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의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청년 근속장려금은 중소기업 취업 청년들의 장기 근속을 유도하고 대기업과의 임금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1~4년차 청년근로자가 근속하

고 있는 중소기업과 근로자에게 4년간 최대 2천만원의 장려금이 지원된다.

참여대상 기업은 담양에 소재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이며, 청년은 전남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45세 이하로 중소기업 등에 취업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8일까지 담양군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을 확인 후 신청 서류를 준비해 담양군 청 경제교통과로 방문 또는 우편접수하면 된다.

이병노 군수는 “지역 청년들의 안정적인 임금을 보장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도움을 주기 위한 사업”이라며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과 청년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담양=정승균 기자

구례군, 정월대보름 달집태우기 행사 성료

면민 한자리 모여 한 해 안녕·풍년 기원

구례군은 3일 “최근 토지면 용정마을 일원에서 토지면 정월대보름 달집태우기 행사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웃놀이, 마을 별 전통놀이 대항을 시작으로 풍년 기원 제례, 달집 태우기 순으로 진행됐다.

행사에 참여한 주민 500여명은 이웃

과 함께 음식을 나누며 화합의 시간을 보냈다. 특히 농촌 유학 학생 및 학부모들은 소원성취 방패연 등을 달집에 달며 도시에서 느끼지 못한 세시풍속을 즐겼다.

풍년 기원 제례는 박영무 전 내죽마을 이장이 집례했다. 토지면장, 청년회장, 향우회장이 차례로 술잔을 올리며

올 한해 면민들의 안녕과 풍년을 기원했다.

제례를 마치고 역대 청년회장들과 직능단체장이 함께 달집에 불을 붙였다. 주민들은 달집이 다 탈 때까지 소원을 빌고, 행사 후에는 부녀회에서 마련한 떡국을 나눠 먹으며 정담을 나눴다.

행사를 주관한 손대삼 토지면청년회장은 “주민을 위한 화합과 희망의 장을 마련해 매우 기쁘다”며 “행사 개최에 많은 도움을 준 세마을부녀회 및 직능단체, 면사무소, 파출소, 소방서 등에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다. /구례=임종길 기자

고흥 도양읍, ‘꿈씨앗 통장 지원사업’ 협약 체결

지역사회 온기나눔 문화 확산·인구늘리기 기여

고흥군은 “최근 도양읍사무소 회의실에서 도양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2024 꿈씨앗 통장 지원사업 협약식 가졌다”고 3일 밝혔다.

(사진) 이날 협약식에서는 신준식 지사협 공공위원장, 장종실 지사협 민간위원장, 이광우 MG녹동새마을금고 이사장, 김경수 고흥군사회복지협의회 회장 등이 참석했으며, 이광우 이사장은 꿈씨앗 통장 후원금 450만원과 고흥군 줌도리모금 200만원을 기탁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도양읍 협의체의 대상자 발굴 및 사업안내 ▲새마을금고의 후원금 지원·통장 개설 ▲사회

복지협의회의 후원금 관리 및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골자로 한다.

꿈씨앗통장 지원사업은 2020 고흥 인구 10만 달성 및 온기나눔 문화확산을 위해 지사협에서 추진하는 특화사업이다.

도양읍에서 출생신고를 마친 생후 12

개월 이내 아동에게 10만원을 지원해 저축 습관의 기틀을 마련하고 꿈을 이루는 씨앗(종자돈)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했다.

지난 2020년부터 시작한 꿈씨앗 통장 지원사업은 지역 내 나눔·실천을 전파하면서 기부문화를 조성했고, 민·관이 협력해 복지사업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됐다.

도양읍 출생아 90명에게 통장을 지원했으며, 고흥군 인구 늘리기에도 기여했다. /고흥=최복환 기자



장성군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하세요”

장성군은 3일 “농업인을 위한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군은 4일부터 4월30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접수기간을 운영한다.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는 농가 소득 안정과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뉜다.

소농직불금은 ▲신청농지 면적 1천㎡ 이상에서 5천㎡미만 ▲직전 3년 이상 농촌지역 거주 및 영농 종사 ▲농업의 종합소득 합 2천만원 미만 등 8가지 요인을 모두 충족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하며, 농가당 130만원을 지급한다.

면적직불금은 경작 면적에 따라 구간별 단가를 적용해 지급한다.

이번 방문 신청 대상은 지난해 등록

한 경정제 정보와 일치하지 않는 농가, 신규 신청자, 50km 이상 관외 거주자, 농업법인, 비대면 신청을 하지 않은 모든 농업인이다. 앞선 2월까지 비대면·간편 신청을 받았다.

자세한 내용은 장성군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공익’을 입력해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신청농지 면적이 가장 큰 농가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군은 오는 5-9월 등록 절차와 농산물품질관리원 현장조사를 거쳐 오는 11-12월 중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장성=김문태 기자